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

21면에서 계속

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빨리 알 수가 있을까, 지속적으로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생각 낼 때에... 한생각은 생각 내기 이전에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하여금 생각을 낼 때, 크고 작은 것은 그대로 유(有)의 법으로써 그냥 무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까' 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깐 그렇습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씨름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약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한번 이겨보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야! 저건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게임이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니 달는 데 없이 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자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달아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걸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걸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걸 안 믿는 데...' 이러거든요. 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

“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뒤서는 안 되느니라!
”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팔이 저리고 아파서 못 쓰면 도저히 덩치 큰 사람을 낚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덩치가 작은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팔은 힘이 솟아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몸뚱이를 낚기는 게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왕지사 이겼던 거 조그마한 사람이 이겨라.' 하하하,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써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이러한 한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없으면서도 실은 어떠한 위기에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나 몸이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한국판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앞은 방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잡힐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만은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명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서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자신을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믿고 나가고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

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이니라!
”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딱 내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

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칭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로 칭합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는 '자'로 하나가 돼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은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위 법문은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본 종단 중지종풍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합니다
(행자모집)

- 종 정 : 각암 대종사
부 종 정 : 해산 중앙총회회장 : 정관
총무원장 : 능인
중앙선원장 : 해일 사정원장 : 운암
중앙연수원장 : 범아 포교원장 : 향운
교육원장 : 정도 무술연수원장 : 무성
총무부장 : 정타 재무부장 : 무심
교육부장 : 명등 사회부장 : 도안
문화부장 : 해명 호법부장 : 도천
규정부장 : 혜능 사서실장 : 자은

▶ 총무원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부처님 탄생하신
나라에서 모셔온
달라이라마 예종
림마 들체 라마와
티벳스님 8명

1. 티벳스님 조상 합동 천도재 뿌자
2. 국제 보살계 (판차실라) 뿌자
3. 마정수기 소원성취 뿌자

위 내용 범회 행사를 원하시는 사찰에
적극 협조 해 드립니다.

※ 만다라 또는 어떠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 문의: (054) 535-1669 / 011-229-1068
016-9281-1666
▶ 후원: 한국불교 사암 총 연합회
해원 여행사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8일 개강**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기초교리,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안양불교대학 특강교수

- ◆ 세민스님 - 전 해인사 주지
- ◆ 도영스님 - 전 조계종 포교원장
- ◆ 법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 현각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 ◆ 정산스님 - 서울 경국사 주지
- ◆ 현종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 원철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국장
- ◆ 현호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 ◆ 권기종 교수 -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장
- ◆ 엄앵란 - 불자 방송인
- ◆ 남일우, 김용림 - 인기 불자탤런트
- ◆ 최영중 - 불자가수 '108가요 진행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국민은행 안양1분기 지점) 문의전화 ☎ 031)444-5935~6